블록체인의 디파이 대출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defi-lending-on-the-blockchain

스마트 계약을 통한 탈중앙 대출과 차입 경로로 디파이(DeFi)는 결국 전통적인 금융 산업을 전복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탈중앙 금융(DeFi)의 세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유의 무신뢰한 작동 방식과 쉬운 자본 획득으로 글로벌 금융 차입 구도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가 시가총액 2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급성장한 덕분에 새로운 제품과 오퍼링이 등장했습니다.

디파이의 등장과 함께 대출은 이미 암호화 생태계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대출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핵심 상품 중 하나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학생대출 등의 용어에 익숙합니다.

전통적인 대출에서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벌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부동산·보석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의 이러한 교역 사유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승인을 받기 전에 '고객 파악'이나 신용점수 등 배경조사를 실시해 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대출과 차입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대출과 차입 활동은 탈중앙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중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중개나 금융기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직접 상호 거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장동 실행하는 컴퓨터 코드로 특정 논리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 거래 규칙이 포함(코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나 대출 약관은 고정금리, 대출금액 또는 계약만료일 수 있으며,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대출은 디파이 플랫폼에서 암호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자산과 교환해 받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코인을 DeFi 프로토콜 스마트 계약에 예치하고 대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화합물의 cTokens, Have의 aTokens, MakerDao의 Dai 등 프로토콜의 원생 토큰을 수여받았습니다.이들 토큰은 원금과 추후 상환할 수 있는 이자 금액을 나타냅니다.

대출자는 암호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디파이 프로토콜 중 하나에서 차입하기를 원하는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합니다.통상 대출은 분산융자와 관련된 우발비용과 위험을 고려해 과도하게 저당 잡힙니다.

잠긴 총 가치(TVL)

탈중앙화 세계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출 및 차입할 수 있지만 프로토콜의 성능을 측정하고 올바른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해당 플랫폼에서 고정된 총 가치(TVL)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VL은 스마트 계약에서의 담보 자산을 측정하는 지표로 디파이 컨트랙트 채택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TVL이 높을수록 컨트랙트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배적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최초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했습니다.디파이 프로토콜 중 TVL은 2021년 1월 180억 달러에서 2022년 5월 1100억 달러 이상으로 1000% 이상 성장했습니다.

데필라마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1,140억 달러로 TVL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선제적인 이점 때문에 많은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 이더리움 위에 세워졌습니다.하지만 테라,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과 같은 다른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대비 일부 장점 때문에 더 적은 비용, 더 높은 확장성, 더 많은 상호운용성이 매력적입니다.

디파이 플랫폼은 어떤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투명성을 제공하며, 또한 무허가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된 지갑을 가진 사용자라면 누구나 세계 어디에서든 서비스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Fi 렌딩 분야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고 Web3 암호화 지갑의 사용으로 DeFi 참여자들이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통해 제공하는 암호화 보안을 통해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